

대행 스님

그저 닥치는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중심 잡고 마음공부 하려면

질문 마음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 마음공부에 대한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법문이 있고 수많은 책들도 있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람이 마음을 배우려면 모든 거를 이 마음으로 들이고 내야 합니다. 잎새 하나까지도, 그 나뭇가지의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딴 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들이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전체 도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보니까 이거는 안됐다 잘됐다, 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틀리다 옳다, 또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 마세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잘된 거든 잘 안된 거든, 미웁든 곱든, 길든 짧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무조건 거기에다 놓고 그저 무조건 입력을 하세요. '너만이 헌 물이 새 물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요. 이거는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계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집에 사람이 살러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그 집을 싸게, 반값에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 이런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산다면 한 반절밖에 주지 않을 텐데요." 하길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천 개도 좋고 만 개도 좋고, 허허허, 십만 개도 좋으니까 한도량에 있는 거, 몽땅 그냥 거기다가 한바다에 집어넣듯 집어넣어 봐라.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냥 바다지 물방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지 않는다. 다 집어넣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랍니다. 금방 한 사람의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도로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돌려져 가지고 재생이 돼서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속을 돌아서 한번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두려움이 없고 인간의 나쁜 마음의 기운이 없이, 그저 자비하고 인정 많고 권위 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꿈에서 고맙다고 그냥 백배사례를 하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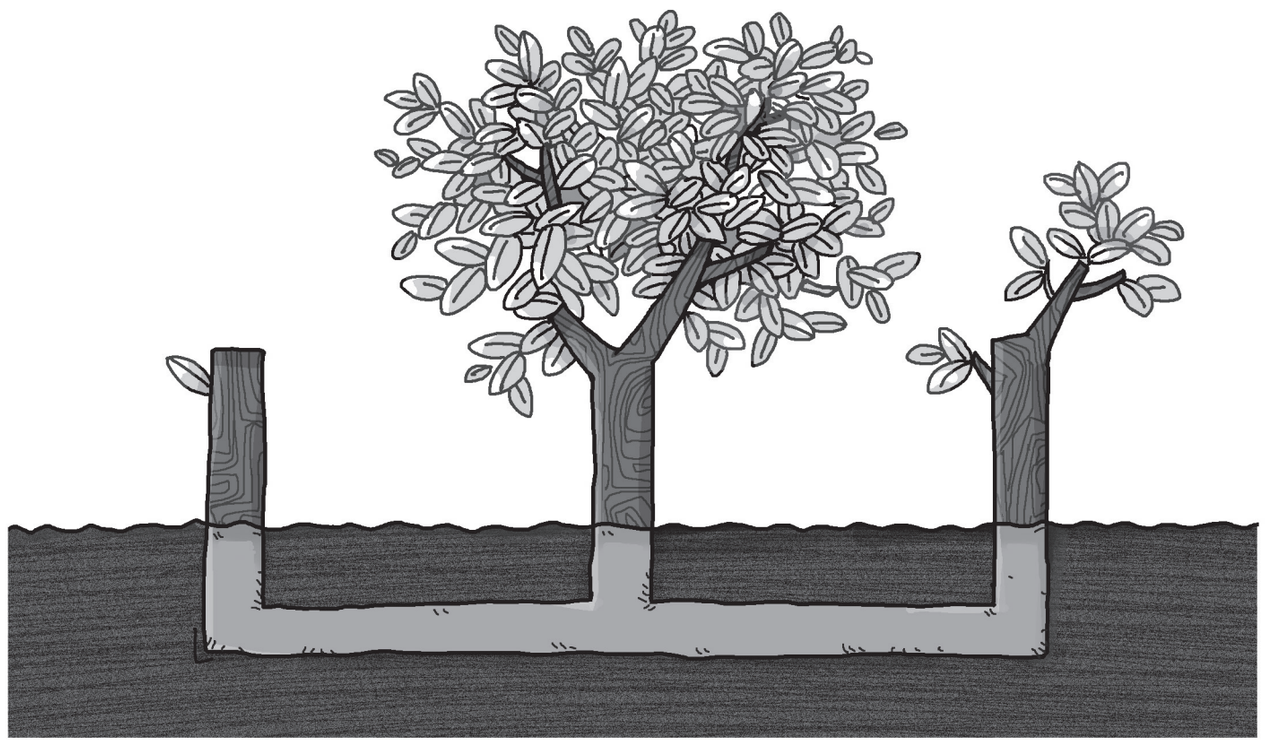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제 참, 의인을 만나서 좋은 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고선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죽기는커녕 아주 잘되니까,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 팔고 오히려 그 집이 낡았으니까 헐고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백 개 수만 개라도 한 그릇에 넣으면 한 그릇의 물이지 딴 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 불(一佛)입니다, 일 불!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당에 부처님을 천 불을 해 놓거나 만 불을 해 놓거나, 이 부처 저 부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할 것 없이, 만 불이니 천 불이니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아주 둘 아니게 다 그냥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걱정도 없죠.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몽둥이로 쳐도 보이질 않으니 누가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를 치는 사이 없이 치고 맞는 사이 없이 맞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치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거를 다 알아서 능통하고 모두 마구니도 둘 아니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님이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톡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미우면 그냥 콕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이쁘든지 밉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둘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둘 아니게 보고 자기 아픔과 둘 아니게 보고, 자기 부모 아님이 없고, 자기 자식 아님이 없고, 자기 형제 아님이 없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항상 문을 열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거를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십시오.

습을 녹이고 차원이 높아지고 싶어요

질문 뜻으로 푼 천수경에도 "육신의 습성을 녹이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서 저도 나름 노력하는데 저에게 쌓인 습을 녹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그 습을 다 녹이고 차원이 높아지고 싶은데 부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본래 사람은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아서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공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한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래도 그걸 곧이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아예 곧이 안 듣는 겁니다. 그 관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살아나온 그 누더기가 붙어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서, 하나도 거칠 게 없고 걸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냥 따라서 기쁘게 살라.' 이래도 하여튼, 기쁘기는커녕 요만한 거 하나라도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하천세계의 생명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모든 거를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굴려서 제 차원대로 다 나누어지니까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그거야 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죠.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만물 중에 인간이 고차원적이므로 99%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한 찰나 요렇게 돌리면 될 것을 그렇게 누더기가 붙어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공해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는 거다. 그대로 공해서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이 모든 게 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하루살이가 뭡니까, 일 초살이지. 허허허. 그냥 딛고 가면서 그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깥에서 닥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지럽고 괴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어떤 때는 너무나 딱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여러분한테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분일초도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다 먹어야 다 줄 수 있다.'

☞ 22면으로 계속

